

“불편하다 vs 흥미롭다” ‘착하게 살자’, 상반된 시각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 처벌 등 실제 과정 공개 범죄 사건·교도소 회화화 할 수 있다는 점 경계

‘착하게 살자’ 첫 방송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과연 ‘절대 죄짓고 살지 말자’는 기획 의도를 전달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19일 JTBC ‘착하게 살자’가 첫 방송됐다. 법무부와 경찰의 허가와 협조 아래 실제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에서 모든 촬영이 이뤄진 국내 최초 사법 리얼리티로, 죄를 짓고 처벌을 받는 실제 과정을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배우 김보성, 박건형, 방송인 유병재, JY 권현빈이 여주교도소의 미결수용동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거쳐야 하는 많은 단계가 낱알이 드러났다.

출연자와 시청자에게 충격을 준 것은 황문 검사. 마약이나 담배 흡

기 등 금지 물품을 숨기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절차다.

박건형은 “온몸이 인신분해되는 느낌”이라고 당시의 참혹한 심정을 밝혔다.

우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의 연속이었다. 출연자들은 예능 촬영임을 안 뒤에도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상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보성을 제외하면 얼굴에 긴장과 두려움이 묻어났다. 세트장이 아닌 진짜 재소자들이 있는 교도소에 연예인들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 그것을 예능으로 제작한다는 것.

유병재는 “무슨 정신이 바뀐 사람들이길래 이런 걸 찍지?”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단순히 ‘교도소 체험’이

되는 걸 방지하고 출연자들에게 실제와 비슷한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 심한 카메라를 진행했다.

출연진이 사법 절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을 법률 자문을 통해 기획한 것. 박건형은 임형준의 뺑소니를 알고도 차를 빌려줘 범인도피죄의 혐의를 받았다.

권현빈은 살인미수, 유병재는 실수로 산불을 낸 중실화죄, 김보성은 절도죄로 드러났다.

교도소에 갇힌 죄를 만든다는 점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착하게 살자’가 교도소 회화화 혹은 교도소를 이용한 웃음 만들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장치이나, ‘실형 카메라’라고 명명한 몰래카메라 형식을 빌려 박건형이 임형준에게 차를 빌려주게 하고, 유병재와 위너 진우가 서로에게 죄를 따넘기려 하고, 권현빈이 같은 그룹 멤버 김상균과 재판에서 다투게 하는 것은 아무리 예능이고 가짜라 해도 도를 지

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경찰 조사, 구속 등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지만 실제로 겪고 싶지는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봤다는 의견도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세세하게 보여주지 않는 경찰 조사, 재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호기심을 충족한 것. 또 박건형, 유병재, 권현빈의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이다.

첫 방송에는 교도소 생활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지만, 방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제작진의 의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범죄 사건과 교도소를 회화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동시에 ‘착하게 살자’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예능이며 모든 상황이 법무부 협조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환기시켜야 한다는 점이 과제다.

“베테랑까지 꺾다”... ‘신과함께’ 역대 韓영화 톱3 등극



판타지 액션 영화 ‘신과함께 죄와 벌’(이하 ‘신과함께1’, 김용화 감독, 리얼라이즈픽처스 제작)이 마칠내 역대 한국영화 흥행 톱 3위에 올랐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시장 집계에 따르면 ‘신과함께1’은 지난 21일 13만6672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5위를 기록했다. ‘신과함께1’의 누적 관객수는

1354만2023명으로 집계됐다.

신작들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꾸준히 관객을 끌어모은 ‘신과함께1’은 개봉 33일 차였던 지난 21일 1350만 터치다운에 성공하며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흥행 3위를 지키던 ‘베테랑’(15, 류승완 감독)의 기록(누적 관객수 1341만 4009명)을 꺾고 새로운 톱3로 거듭난 것.

그야말로 극장가 ‘신(神)드롬’을 낳은 ‘신과함께1’의 다음 목표는 역대 흥행 2위인 ‘국제시장’(14, 윤제균 감독)의 기록(누적 관객수 1425만7115명)이다. ‘국제시장’과 ‘신과함께1’의 차이는 71만5092명. 설을 앞둔 국내 및 해외 신작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신과함께1’이 마의 ‘국제시장’ 기록까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신과함께1’은 지난해 12월 20일 개봉해 개봉 2일 만에 100만 돌파, 4일 만에 200만 돌파, 5일 만에 300만 돌파, 6일 만에 400만 돌파, 7일 만에 500만 돌파, 9일 만에 600만 돌파, 11일 만에 700만 돌파, 12일 만에 800만 돌파, 13일 만에 900만 돌파, 15일 만에 1000만 돌파, 18일 만에 1100만 돌파, 23일 만에 1200만 돌파, 28일 만에 1300만 돌파 기록을 세우며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다.

한편, ‘신과함께1’은 저승에 온 망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 삼차사와 함께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블록버스터다.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강기, 김동욱, 도경수(역소), 이정재, 오달수, 임원희, 장광, 정해운, 김수안, 마동석 등이 개성했고 ‘미스터 고’ 국가대표 비너는 괴뢰워의 김용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트와이스, ‘하트 셰이커’ MV 1억뷰 돌파... 걸그룹 최초 ‘7연속 신기록’



7연속 1억뷰 돌파라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지난해 8월 ‘치어 업(CHEER UP)’ MV, 11월에는 ‘우아하게(OOH-AHHH)’ MV가 2억뷰를 돌파했고, 이어 12월에는 ‘TT’ MV가 3억뷰를 돌파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한국 여성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유튜브 브서 3억뷰를 기록하고 2억뷰 MV를 3편이나 보유한 팀에 등극했다.

트와이스의 ‘하트 셰이커(Heart Shaker)’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억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걸그룹 트와이스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국내 걸그룹 사상 최초로 7연속 1억뷰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트와이스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에 공개한 리패키지 앨범 ‘메리&해피(Merry&Happy)’ 타이틀곡 ‘하트 셰이커’ MV는 공개 약 41일 7시간 50분 만인 오늘(22일) 오전 1시 50분에 1억뷰를 달성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공개 당시만 하루가 되기도 전인 2시간 50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지금까지 대기록 달성을 기대해 왔다.

트와이스는 유튜브에서 대기록 릴레이를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일무이한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트와이스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데뷔곡인 ‘우아하게(OOH-AHHH)’부터 ‘하트 셰이커’까지 모든 활동곡 MV를 1억뷰 반열에 올리며

버린 상대를 향해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이뤄내고 싶은 트와이스의 마음을 담은 곡으로 각종 음원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음반 방송 9관왕을 차지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한편 트와이스는 내달 7일 일본에서 두 번째 싱글 ‘캔디 팝(Candy Pop)’을 발매하고 현지에서 3연속 인기몰이를 노린다. 지난 12일 0시에는 현지서 ‘캔디 팝’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산공개했는데 해당 곡은 공개와 동시에 라인뮤직 톱100 차트 1위에 올랐다.

‘캔디 팝’의 발매에 앞서 트와이스는 이달 19일 아이치 세토시 문화 센터를 시작으로 22일 후쿠오카, 23일 히로시마, 25일 도쿄, 26일 오사카, 29일 도쿄, 31일과 2월 1일 사이타마 등 일본 6개 도시 8회 공연의 전국 쇼케이스 투어 ‘TWICE SHOWCASE LIVE TOUR 2018 ‘Candy Pop’에 돌입, 모든 공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현지 인기를 입증했다.

‘어서와...’ 시즌제 확정... 제주 특집으로 시즌1 종료



안방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MBC 예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시즌제로 진행된다.

22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이날 시즌 마지막 촬영을 마쳤

다. 영국 친구들과 이은 제주 단체 여행 편을 끝으로 여행기를 담아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과 이들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인기를 끌었다.

각 나라의 친구들과 겪는 한국과의 문화 차이가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를 통해 이뤄지는 문화적 교류도 유익했다. 근래 시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과일티 1회 0.8%(닐슨코리아 케 이블가우 전국 기준 이하 동일)로 시작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처음 방송한 후 폐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신드롬을 일으켰고, 채널 사상 최고 시청률 경신을 물론 제주도 공약이 걸린 5%

를 돌파했다.

제작진은 1월 초 독일, 멕시코, 인도, 이탈리아 친구들과 참여한 제주도 단체여행 편 촬영을 진행, 시즌1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은 ‘시즌제 도입이 필수요소’로 꼽히고 있다. 한정된 포맷을 장기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 ‘어서와’ 팀에게는 특히 더욱 필요한 시기였다.

매주 국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출연자 미팅, 해외 촬영 등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기 때문. 7개월 간 쉬 없이 달려온 ‘어서와’ 팀에게 주어진 휴식기, 참신한 시즌2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아쉬움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음력 12월 7일)



▶**경계**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 것. 타인에게 베풀라. 하나 주면 셋, 넷을 얻는다. 어릴 때부터 사귀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믿는 것도 한도가 있음을 알 때. 3, 7, 11월생 모든 것을 너무 내 보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닫아라.



▶**신기** 꽃병에 물을 갈아주는 마음씨는 자신의 사업에 에너지 를 얻는 것과 같다 하겠다. 구상력이 뛰어난 그대, 실력을 발휘 하라. 3, 8, 12월생 금전으로 고통당할 수. 힘겹다 애정을 멀리하면 후회 후회할 일 생길 듯.



▶**희생** 분수를 지키고 오만하지 말라. 열심히 인내하며 씨 를 뿌리면 곧 결실을 본다. 친지와 우애를 돈독하게 함이 가정을 화목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 사랑도 꽃피우는 결과를 가져올 듯. 7, 8, 9 성씨 명에가 중요함을 알라.



▶**진정** 답답한 일들이 목전에 있을 지라도 침착하게 처신함이 좋겠다. 저지른 잘못이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라. 지금부 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전진함이 좋겠다. 7, 8, 9 성씨 자녀에게 좋은 소식 있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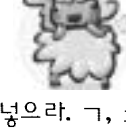
▶**용기** 길으로는 진실한 것처럼 대해도 속은 이기적인 당신 임을 알라. 그런 성격 버려야 자신도 진실한 사람 만들 수 있다. 3, 7, 11월생은 자신이 만든 복잡한 애정 관계를 청 산해야 사업도 대성할 수 있을 듯.



▶**자비** 제주도 말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지만 어떤 일이 닦 치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믿고 나아가라. 인생은 곡예사가 줄 타는 것처럼 어려울 때와 즐거울 때가 있는 법. 힘들다 속단하지 말고 전진하라.



▶**광기** 뒷사람 충고를 귀담아들라. 어른 말을 들으면 자 다가도 덕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7, 8, 9 성씨는 서두르 지 말라. 4, 6, 8월생은 차분하게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을 듯. 남쪽이 길하다.



▶**행복** 소두 가지 일을 놓고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하나만 택하라. 선택의 지혜가 분명히 올 것이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받겠다. 나들이를 가서 가정에 활력을 불어 넣으라. 7, 8, 9 성씨 인내 필요.



▶**원망**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이고, 또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면 3, 5, 9월생은 주위 사람 조언을 참고해 처신 하라. 여행 가는 것은 좋지만, 혼자 가지 말라. 이성 문제로 뜻밖의 변을 당할 우려 있으니 몸조심하라.



▶**꿈** 미혼은 배필이 생길 듯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일이 번창하니 매사 손조로 등. 겸손한 자세로 하루를 보내라. 7, 9, 12월생 사랑은 양보에서 오는 것. 부부는 일상동행인 만큼 화합하라. 건방진 각별히 신경 쓸 때.



▶**계** 매사 신중히 생각해 처리함이 좋을 듯. 특히 병, 남쪽 사람과의 인연은 더욱 길하다. 주변 사람과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5, 7, 11월생 애정에 구설이 따르니 행동을 조심하고 가정을 지리라.



▶**행운** 동기간 우애가 없으니 불화가 생길 듯. 서로 양보하고 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노부모님 계신 사람, 우환이 염려 된다. 소, 용, 닭띠가 가족 중에 있으면 서로 언행을 조심하라. 시비가 엇갈릴 형제간 우애가 우려된다.